

제목: "흠어진 성도들에게 있는 일"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흠어진 성도들과 같은 우리들에 기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지만 정작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에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흠어진 성도들이 기대하고 살아야 할 것과 그 축복을 알려 주십니다. 우리도 이 기대감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 믿음의 _____이 있다고 합니다. (2절)
2. _____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3절)
3. _____이 없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5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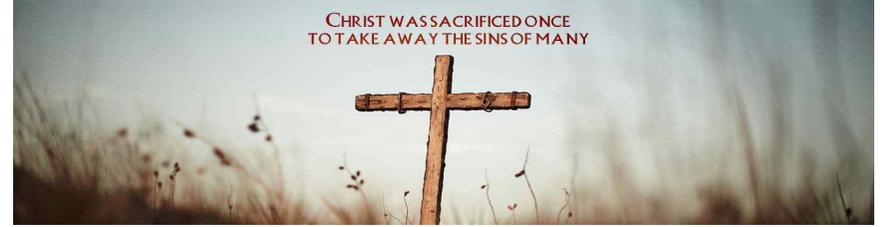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James 1: 1-8 신약 371 페이지 Presider
- 말씀 "흠어진 성도들에게 있는 일"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447장) 이 세상 끝 날까지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한자 공부)

중학교에 입학한 후 한문 공부가 시작되었다. 얼마 후 내가 살던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전학하기 전 버스를 3번 갈아타야 왕십리에 있던 학교로 등교할 수 있었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학교를 가기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뱅뱅이가 잘못 떨어진 탓으로 왕십리까지 등교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좋았던 것 하나는 3번 버스를 갈아타고 가는 동안 거의 매일 아침마다 퀴즈를 보았던 한문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나에게 참 필요한 시간이 되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붓글씨로 카드 앞면에 다섯 글자 그리고 그 카드 뒷면에 그 뜻이 무엇인지 펜으로 적어 주셔서 두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가지고 늘 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이다. 3번을 갈아타는 버스 안에서의 공부는 집에서 좋지 않은 집중력을 동원해 더 많은 시간 공부 했던 것 보다 훨씬 능률적이었고 괜찮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한문 시험은 늘 좋은 결과를 냈던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붓글씨로 만들어 주신 카드는 없어졌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그 글자들이 남아서 아직도 도움을 주고 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했던 것 같지만 내에게는 평생 동안 한문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건의 시간을 위한 책도 제공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자고 도전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평생을 좌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잘 듣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답답할 때가 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귀찮게 하려는 것도 아니며 실은 듣는 성도 자신을 위하여 하는 권면인데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어떤 때에는 더 이상 권면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은 것이 아닌가?라는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와 그 사역에 연결된 인생의 영혼은 정체되고 죽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는 성령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찌르신다. 어떻게 해야 할까? 듣지 않는 교인들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숙하게 여기며 큰 동그라미만 그려가면서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또 다시 말씀해 주신다. 나의 임무는 도전하는 것이고 듣지 않아도 또 다시 말하는 것이며 전하는 것이라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사이고 목회일 것이다.

어떤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고 말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주일 내내 일하며 고생한 성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한다는 것 자체도 고민이 될 때가 있다. 그 시간만이 쓸 수 있는 시간이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그 예배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숨을 걸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일하시고 집에 돌아와 나를 위하여 먹을 갈아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써 주신 한문 카드가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한문을 전부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 수고와 섬김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같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배가 끊임없어야 하고 말씀 도전은 목숨이 다 할 때까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줄을 타고 성도들이 성숙케 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새해 달력

2023년 교회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선물을 못 가지고 가신 분들은 오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